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_ <http://www.daegu.jubo.or.kr>



미켈란젤로 작, 『모세』(c.1513~1515), 대리석,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

## † 오늘의 전례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마르 1,21ㄴ-28 참조)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을 띤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는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이사 55,11)하신 대로입니다. 세상 만물이 복종하는 이 말씀에 죄인의 영혼만이 저항합니다.

**제1독서** 신명 18,15-20      **제2독서** 1코린 7,32-35      **복음** 마르 1,21ㄴ-28

**입당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계산본당 주임

예로부터 진리를 갈망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탐구하길 원하던 사람들은 더 큰 가르침을 얻기 위해 훌륭한 스승들을 찾아 나섰다. 스승이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권위 있는 스승의 곁으로 모여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흔히 나름의 이상과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학파가 구성되었고, 본격적인 학문의 연구와 저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위 있는 단 한 분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맙게도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 해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 친히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듣고 그분의 능력을 마냥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 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고 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고 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놀랄만한 신비를 기초로 설립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일종의 놀람에서 출발하였음을 잊지 말자. 권위 있는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보기 위해 해매고 다닐 필요도 없다.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도와주고 계시지 않는가! 가깝게는 미사와 영성체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전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찬전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며, 주님으로 성화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펴시고 마귀까지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준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성교회를 통해 이미 시작되고 실현되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 복음에서 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다. 더러운 악령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모든 생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참 하느님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주님을 나의 참 스승으로 모셔드리자. 그분의 권위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 드리자. **궤**

주님 봉헌 축일 특집

봉헌 생활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2월 2일을 교회에서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졌습니다. 6세기에는 시리아에서 이 축일이 거행되었고, 로마는 7세기 후반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성모 취결례(정화) 축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주님 봉헌축일'로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초의 봉헌과 축성

이날에 미사 전에 초를 축성하는 예절을 행하는데 원래 이 날 행렬에 사용되던 초를 장엄하게 축복하던 전통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하고 모든 전례에서 그 촛불을 켜놓는 관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태워 빛을 발산하는 초처럼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하느님께 봉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수도성소를 위한 봉헌 생활의 날

또한 이날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봉헌 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봉헌 생활에 대하여 어버이다운 배려를 해 오셨던 교황님께서서는 봉헌 생활은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일깨워 주는 "살아있는 기념"이라고 하셨습니다.(교황 권고 '봉헌 생활' 22항 참조). 교황청 수도회성은 해마다 맞이하는 이 봉헌 생활의 날에 적극적인 성소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며 모든 신자가 수도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봉헌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봉헌 생활의 해 개막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2014년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부터 2016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까지 '봉헌 생활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 1965.10.28) 반포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봉헌 생활의 해'는 하느님께 온전히 스스로를 봉헌하는 수도생활의 이해와 수도 성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한 취지입니다. **필요**





사목단상

그게 아니고...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사실은 볼리비아로 간다고 했으니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볼리비아가 남아메리카 어디엔가 있는 나라라는 것 밖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혼자서 비행기도 타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낯선 것이 하나 둘이었겠는가? 지나고 보니 그 때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마주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었을까 싶었다.

5개월의 말공부를 끝내고 와서 처음으로 한 출동(?)은 성탄 미사를 지내러 가까운 공소에 갔던 것이었다. 미사 시작 예정 시각은 5시! 그 시각 즈음 도착해서 본 광경은 혁! 그나마 문 열려 있는 조그만 공소 건물 뿐, 모여 있어야 할 교우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조금 긴장을 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떠오른 생각은 '5시가 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오나 보다!'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소 입구에 서있으면서 5시가 조금 지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면서 도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웃으며 맞이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그냥 참았다. 미사를 시작해야 할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동행하셨던 수녀님은 그제야 미사 중에 있을 유아 세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참았지만 얼굴이 차츰 석고처럼 굳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드디

어 미사를 시작했다. 바깥은 미사 중간쯤 되니 벌써 어두워졌다. 전기가 없는 곳이라 켜놓은 불쌍한 작은 초 두 개에 의지해서 더듬더듬 미사를 경문을 읽고 있는데, 벽은 흠결의 벽돌이고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진 공소라서 성탄 미사라고 하는데 덩기는 얼마나 더웠던지... 낯선 외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쁨 대신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첫 성탄 미사가 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 얼굴은 성탄이라 기쁘기만 하던데...

어느 정도 적응되고 나서 되돌아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강했던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사는 정각에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반듯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며 몰라도 많이 모르던 시절이었다. 선교사로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신학생 때 읽은 책 제목처럼 하느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었다. 고정된 생각이나 관습 속에 갇혀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모든 것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해도 잘 정돈된 공소가 아니라도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본질적 역할은 다른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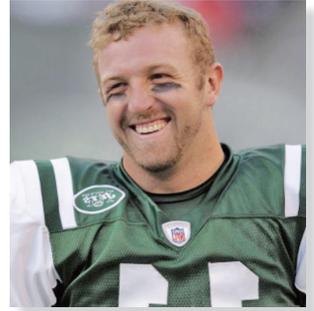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재작년에 뉴욕 제츠에서 세인트루이스 램프로 이적한 쿼터백 켈렌 클레멘스는 태중 교우이고 아주 열심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고등학생 때 고교 미식축구 패스 신기록을 경신하고 오레곤 주립대학 재학 시절에도 패스 기록을 세워 아직 보유하고 있는 클레멘스는 바쁜 프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매주 미사에 참여하고 자주 고해한다고 합니다.

클레멘스는 오레곤 주립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고향 집을 떠나 대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다니면 되었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큰 도시에서의 대학 생활은 재미있는 것도 많고 유명 운동선수이다 보니 인기도 높아서,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잔소리도 들을 필요 없고, 무슨 짓을 하든 나무랄 사람이 없었죠. 운동만 잘 하면 됐으니까요. 어지간한 쾌락은 다 손닿는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일까? 길어야 십몇 년 선수생활 끝에 과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명성도 쾌락도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않고 공허하다는 걸 아직 젊을 때 깨닫



게 된 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은혜는 하느님께서 짚아주신 아내와 사랑하며 자녀들을 키우도록 허락받은 일이라고 말하는 클레멘스는 2008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딸을 인파 위로 들어 올려 축복을 청했는데, 교황님께서 앞으로 불러내어 아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식축구는 제 직업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2월 1일	성녀 브리짓다(수녀, 설립자, 킬데어, 453~523년), 성 지그베르트(왕, 아우스트라시아, 656년) 성녀 신니아(동정녀, 얼스터, 5세기경), 성 피오니오(신부, 순교자, 스미르나, 251년경)
2월 2일	성 고르벨리오(백부장, 베드로의 제자, 주교, 1세기), 성녀 아델로가(동정녀, 키칭겐, 745년) 성 아프로니아노(기록 책임자, 순교자, 304년)
2월 3일	성 블라시오(주교, 순교자, 세바스테, 316년경), 성녀 첼라이나(동정녀, 6세기) 성 안스카리오(대주교, 선교사, 브레멘-함부르크, 801~865년)
2월 4일	성 라바노 마우로(주교, 마인츠, 776~856년), 성 롬베르토(주교, 브레멘-함부르크, 888년) 성 이시도로(신부, 수도승, 펠루시움, 450년경), 성녀 필레아(주교, 순교자, 트무이스, 305년경) 성 질베르토(신부, 설립자, 켐프링햄 1083~1189년경)
2월 5일	성 보달로(은수자, 720년), 성녀 아가타(동정 순교자, 카타니아, 249/251년) 성녀 아델라이드(수녀원장, 빌리히, 1015년경), 성 아비토(주교, 비엔, 519년경) 성녀 도미니카(순교자, 글래스텐베리, 710년경)
2월 6일	성녀 도로테아(동정 순교자, 카이사레아, 303년경), 성녀 렐린다(수녀원장, 아이크, 750년) 성 바오로 미키(수사, 순교자, 나가사키, 1564~1597년), 성 베다스토(주교, 아라스, 539년) 성 실바노(주교, 순교자, 에메사, 312년)
2월 7일	성 리카르도(왕, 영국, 720년), 성 모세(주교, 은수자, 사라센, 372년경) 성 테오도로(군인, 순교자, 헤라클레아, 319년)
2월 8일	성 마인골드(순교자, 892년/10세기), 성 스테파노(설립자, 수도원장, 뮌헨, 1046~1124년) 성녀 엘플레다(수녀원장, 휘트비, 714년), 성 요한(설립자, 마타, 1213년) 성녀 코인타(동정 순교자, 알렉산드리아, 249년)

■ 제24회 성 이윤일 요한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21일(수) 오후 5시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교구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대주교님께서는 1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계산성당에서 열린 2015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에 참석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가톨릭신문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5주간, 2015. 2. 1~7.>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레위 25-27장	민수 1-3	4-6장	7-10장	11-14장	15-17장	18-21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민수기』

- 이름 : ‘민수기’(民數記)라는 이름은 칠십인역(그리스어) 성경 방식 이름이다.  
히브리어식 이름은 ‘광야에서의 여정’인데 이 이름은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 구조 :
    -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일들(1,1-10,10) : 인구조사와 진영의 조직, 다양한 법령들, 전례 규정들
    - 시나이에서 모압으로(10,11-21,35) : 이스라엘의 불평과 구(舊)세대의 반역
    - 모압에서(22-36장) : 땅의 점령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
-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규정들
- ☞ 『레위기』의 주제를 연장하는데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손상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문의\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이제부터라도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2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2월 2일(월) 19:30 교육관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2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2월 7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2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7일(토) 11:00 대안성당

## 대리구 소식

### 발달장애 자녀들의 홀로서기 특강

일시: 2,4(수) 10:00~12:00  
장소: 3대리구청 1층 대강당

## 성소 | 피정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2,8(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고등학생을 위한 예수회 성소 피정

기간: 2,27(금) 17:00~3,1(일) 16:00  
장소: 예수회센터(서강대 옆)  
주제: 나의 꿈과 하느님의 꿈  
대상: 남자 고등학생  
문의: (02)3276-7715 / (010)9981-1208

### 전례꽃꽂이연구회 사순 피정

일시: 2,9(월) 10:00~16: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 및 문의: (010)3546-8339

###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2,6(금) 17:30~8(일)  
4박 5일: 2,9(월) 14:00~13(금)

이나시오: 2,6(금) 14:00~8(일)  
에니어그램: 2,14(토)15:00~15(일)  
장소: (031)946-2337~8

### 빛떼제기도

일시: 2,14(토) 18:00~21:00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사녀회, (010)9056-9005

## 교육 | 모집

### 2015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6(금)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http://ci.catholic.ac.kr>

### 제3회 대안학교 교육을 위한 간담회

날짜: 2,8(일) 14:00  
장소: 수원교구 단내 성가정 성지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초6~고2 부모, 자녀  
문의: (031)633-9531

###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옥잠화 모임

일시: 2,8(일) 14:00  
장소: 서울 상도동 셋별유치원

수도회명: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  
문의: (010)5208-6773

###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2,13(금)까지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남녀  
문의: 476-3100 (1호선 교대역)

### Show Bible & 영화 속 우리 이야기

Show Bible: 2,10~3,10 (매주 화)  
영화속우리이야기: 2,11~3,18(매주 수)  
대상: 청년(2만 원)  
장소: 바오로딸서원 / 19:00~21:00  
문의: 양채사리아 수녀, (010)2503-5185

###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4,17(금)~28(화) 11박 12일  
장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내측 468만원, 발코니 518만원-대한항공이용  
문의: (02)2281-9070  
<http://www.cttour.org>

###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하는 순례

주옥같은 일본성지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눈물나는 순교영성의 중국성지순례  
장소: 상해, 소주(주문모,감대진,최양업)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10)4239-1929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본도의 한방을 기를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본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발아플뎀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탈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아 건물 4층  
011-530-7467  
TEL 743-4488 FAX 744-1594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 김영환 베네딕도 몬시뇰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2.1(주일) 10:00  
 장소: 교구청 성직자 묘지

**행사 | 모임**

**렉시오디비나와 함께 하는 신약성경 통독피정**  
 기간: 3.7(토) 13:30~8(일) 17:00  
 장소: 한티 피정의 집, 회비: 5만 원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cafe.daum.net/biap  
 신청: 2.15(일)까지 250-3082  
 입금: 대구 508-11-836412-0 한상숙

**성체 신심 세미나**  
 기간: 2.27(금)~3.1(일)  
 장소: 툇평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강사: 하성호, 송재준, 변재홍, 정기모  
 내용: 현시, 조배, 강의, 참회, 면담, 안수  
 문의: (010)5493-1819

**아프리카 쇼나 성물전(천부성당 후원)**  
 기간: 1.28(수)~2.3(화)  
 장소: CU 갤러리  
 내용: 아프리카 자연과 신앙을 표현한 성물  
 문의: 천부성당, (054)791-6047

**교육 | 모집**

**겨자씨성서 수강생 모집**  
 구약반: 월 10:00, 목 20:00

신약반: 금 10:00, 월 20:00  
 연구과: 수 10:00 복음묵상, 기도수련  
 문의: 625-4627, (010)4107-4627

**가톨릭근로자회관 2월 영여성성공부반 모집**  
 개강: 2.3(화) 월 3만 원  
 낮반: 사도행전, 레위기(화, 금 10:10)  
 저녁: 레위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잠언

**2015년도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특별과정(소양)자격취득가능(1년과정)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850-3366 / 3377

**24회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2차 2.28 / 3차 3.28(8주 이상)  
 부모동반 연수: 매월 말 출발(4주 이상)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음악), 음악

원 레슨(피아노, 성악, 오르간, 뮤지컬 등)  
 취미교양, 자격증과정 및 전문가양성과정  
 모집: 2.27(금)까지 / 개강: 3.2(월)부터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4~7

**채용 | 안내**

**교구 소람상담소 재능기부 심리상담사 채용**  
 자격: 상담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접수: 담당사제 kim-sinbu@hanmail.net  
 문의: 소람상담소, 250-3113(2.22까지)

**대구평화방송 신입 아나운서(남) 채용**  
 접수마감: 2.13(금)  
 문의: 251-2610, 2650  
 참조: http://www.dgpbcc.co.kr

**대건인쇄출판사 직원 채용**  
 자격: 디자인관련학과 전공, 경력 5년 이상, 인디자인 이력서, 포토폴리오 지참  
 대상: 여성 / 신청: 2.6(금) 17:00  
 문의: 252-6737(방문 접수)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면 다큐 '임파라 사랑따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2월 7일(토)	왜관 수도원 이석철(미카엘) 수사
2월 14일(토), 21일(토), 28일(토)	왜관 수도원 진문도(토마스 모어) 수사신부

※ 특집 프로그램은 수술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졸임/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호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구스타운 이불  
 국내/국제특허  
 침구류 / 수염품 제조  
 성당 방식  
 레이저방식 / 장의자 방식  
 흡수폼 / 단체 사은품  
**CARITAS**  
**HAN KWANG**  
 한광  
 안젤라 권순화  
 010-9357-9988  
 안드레아 이동환  
 010-3506-255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인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NS1 마스터용역**  
 Master Service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건물관리/주차관리/경비/소독/청소  
 김동진(가브리엘) 010-2890-0408  
 김기원(마우리시오) 010-3157-8087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순천역 2번 출구